



금주의 말씀

시편 31편 19절~24절



변익석 목사
엘림침례교회 담임

매일 아침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일 것이다. 잠을 자는 동안 나는 내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심장에 밤새도록 쉬지 말고 뛰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다. 잠자는 동안에 숨 쉬는 것 멈추지 말아달라고 주문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밤새도록 심장은 계속 뛰었고, 내가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쉬지 않고 숨을 쉬어 아침에 일어나게 된 것이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살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말한다. 질병 또는 두려운 환경이 있어야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도움을 요청한다. 두려워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 이것이 더욱 살아 두신 은혜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성경에보면 사랑하신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심판하신다는 내용도 엄청 나온다.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사건, 사사기에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수 없는 이방인들을 통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마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시편 3편5~6절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두려워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존철학자 카에르케골은 이렇게 설명한다.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멀리 떨어지면 불안해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불안하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당연히 불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불안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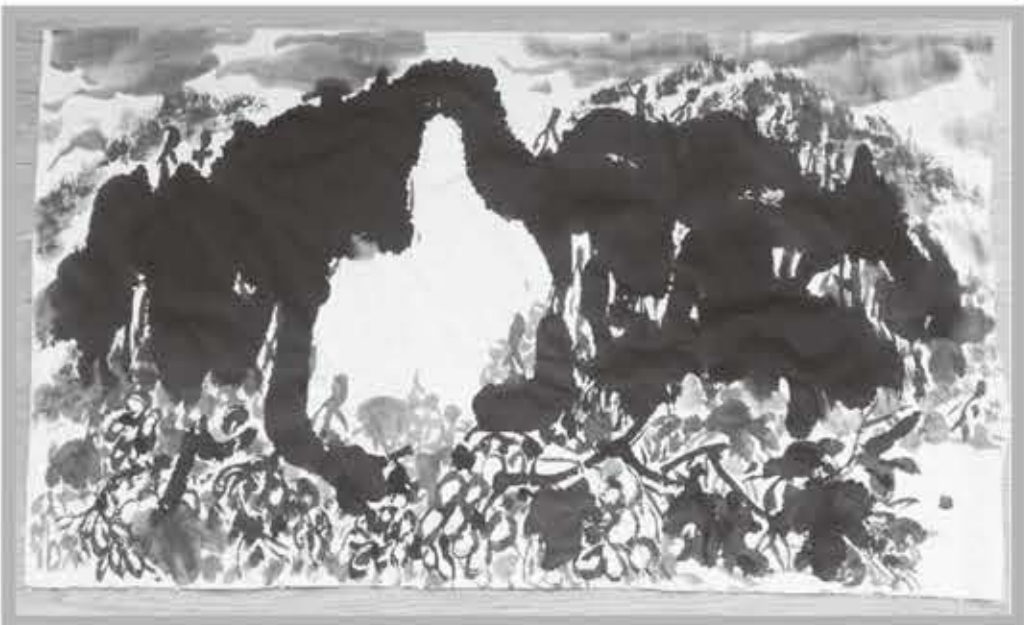
본문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이다. 내용을 보면, 비탄 시와 감사 시가 합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탄시는 슬픔이나 고통을 토로한 시를 말한다. 그런데 잘 보면 감사하는 구절도 여럿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시31: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들...", 원수들이 그

극도의 소외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깨진 그릇과 같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쓸데없고 하찮은 존재처럼 버려졌다는 것이다. 다윗은 이런 극한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사면이 가로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알았다.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을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신앙이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무리 고통과 슬픔의 극한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인간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고백한다. 그렇다. 인간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삼상2:6~7절 "여호와와 죽이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고백이다. 그녀는 다산이 축복의 척도였던 고대에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다. 한나는 인생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다. 롬8:31~32절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예수님이 보증되신다. 다윗은 선취적 신앙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했다. 그 신앙으로 기도했고, 감사했고,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①간구했다. 다윗은 사면이 막히고 캄캄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②감사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살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③간증하며 살았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분의 손으로 승리했노라. 다윗은 이제 성도들도 함께 찬양할 것을 권면한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을 이로다." 두려운 환경과 질병이 찾아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고난 속에서 살아 두신 은혜를 누리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 86.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요15:1~17)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는 표현은 "나는.....이다"라는 형식으로 이러한 용법은 요한이 여덟 번 말한 것의 7번째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요6:35, 48), 나는 세상의 빛이니(요8:12) 내가 문이니(요10:9), 나는 선한 목자라(요10:1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라는 다

음으로 오는 표현이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나무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은 황폐와 곤핍을 상징했다(렘8:13). 포도나무는 열매 이외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이다. 목재나 약재로서 사용할 수도 없다.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이다.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 같이(요17:21~22)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나인 일체성을 말하며 결코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관계를 말한다. 즉,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반대로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6절에 예수를 떠나면 그 결과는 버려진 가지처럼 곧 말라서 쭈개 되기 때문에 일평생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김창남 화백·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 한국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

윌터 바이츠(Walter Julius Veith)는 1949년에 천주교인인 아버지와 루터교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물학자이다. 바이츠의 말에 따르면, 12세 이후 철저하게 하나님이 존재를 믿지 않았다. 바이츠는 케이프 타운 대학, 동물학과의 교수였으며, 철저한 진화론자이며 무신론자였다. 바이츠뿐만 아니라 동물학과의 모든 교수가 진화론자였다.

오늘날 생물학자들의 대다수는 진화론을 추종하지만,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철저한 학문적 탐구와 사실에 바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바이츠는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철저한 진화론자였던 바이츠가 진화론의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화론을 버리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바이츠가 같은 책의 구판(old edition)과 신판(new edition)을 비교하여 보고 발견한 것들을 살펴보자.

구판: 고래류는 화석 기록들 속에서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며, 하나에서 다음으로 진화했다는 증거가 없다.

신판: (고래의 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그 내용을 과학적 용어들 속에 숨기고서, 고래류는 고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렇게 저렇게 진화했다고 말한다.

바이츠의 말에 따르면, 구판은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신판은 절대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바이츠는 이와 같은 진화론의 문제점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바이츠는 진화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바이츠가 진화론을 버리고 창조론자임을 공식으로 드러내 극적인 장면을 한번 보자.

진화론자에서 창조론자로 전향한 바이츠는 학과의 모든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하는

종교전쟁(2)

세미나에서 발표하면서, 유전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진화는 불가능하다(Therefore evolution is not possible)"

바이츠의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이 대학에 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좋은 삶을 살았으며, 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삶은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의 신앙을 도둑질했습니다. 이제 바이츠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시면서 당시들이 어떻게 저를 잘 못 인도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학생의 이야기는, 대학에 진학하여 신앙을 잃은 슬픈 이야기이다.

그후 윌터 바이츠 교수는 케이프 타운 대학을 스스로 사임하였다. 바이츠 교수의 이야기는, 철저한 진화론자가 진화론을 완전히 버리고 창조론자로 전향한 이야기중 하나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이 순수한 과학적 논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믿는다.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된다고 해도, 또는 유신론자가 무신론자가 된다고 해도, 지동설을 믿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지동설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신론자도 유신론자도 뉴턴의 운동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실로 믿으며, 맥스웰의 전자기이론을 믿는다.

그러나 진화론과 창조론은 뉴턴의 운동법칙이나 맥스웰의 전자기이론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을 진화를 전제로 하여 해석하며, 창조론자는 모든 것을 창조를 전제로 하여 해석한다.

바이츠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책의 구판과 신판이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진화론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진화론이 과학이라면, 진화론자가 창조론자로 전향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세상과 세상 학문의 영향을 받아왔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민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신약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세상과 세상 학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 매매·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입니다.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임동(임동사거리 부근)
- 면적: 80평(2층)
- 금액: 보증금 2천5백만 / 월 80만원
※시비 있음
※3층 80평 (추가 사용도 가능)
보증금 2천만 / 45만원

010-5084-2002

교회당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우산동
- 면적: 대지 185평 (교육관, 식당)
2층-보당 90평 3층-약18평
별관-20평 사택
- 금액: 9억5천만원 ※시설비품, 성도 있음

010-2646-2691

교회 임대/매매

- 위치: 남구 진월동 대주2차아파트 상가2층
- 면적: 34.5평 (예배당, 주방겸 교육관)
- 금액: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임대가능)
1억2천만원(대출 3천2백만 포함)
성물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리모델링, 교통, 주차편리

010-2200-8905

건물 임대

- 위치: 서구 내방로 209번길4(상일여고 옆)
- 면적: 43평 (방3개, 화장실 2개, 대형가설, 모던한 주방, 가설 천장형 에어컨, 안방 별도 에어컨)
- 금액: 보증금 3천만 / 월 100만원
※별도의 권리금 없음

010-8430-5515

교회 임대(반지아)

- 위치: 서구 내방로 209번길4(상일여고 옆)
- 면적: 76평
- 금액: 보증금 1천만 / 월 70만원
※시설 권리금 없음
※비품은 없는 상태임

010-8430-5515

교회상가건물 매매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로 182번길(상가 4층)
- 면적: 대지 62평, 건물 131평
1층 - 인테리어 사무실(인수 후 편의점, 카페 가능)
2층 - 교회 / 3층 - 조정 사무실 / 4층 - 사택
- 금액: 6억(조정가능) ※교회비품무로로 드림(비로매개)
※ 교회 이전으로 매매, 기도원, 개척교회, 목회시설, 타업종가능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많음

010-4154-7945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팔림로 180 /3층 (오양리동불교법당)
- 면적: 약 40평(실평수)
- 금액: 시설권리금 7백만(조정가능)
-보증금 4천만 월50만(부가세별도) / 관리비 5만
-보증금 3천만 월55만 / 부가세관리비 25만
※전체바닥도시가지소방일대, 시설원비, 화장실, 샤워실, 단독 2개 냉난방기 천장형

010-2391-1663

교회당 임대

- 위치: 북구 우산동(2층)
- 면적: 40평
깨끗하게 리모델링 됨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비품 상당 후 결정

010-3618-5946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수완동
- 면적: 대지 666㎡ 연건평 1505㎡
지하1층-주차장 492㎡
지상1층-본당 376㎡
2층-교육관 385㎡ 3층-식당 251㎡
- 금액: 상당후 결정

010-7619-1491

교회 임대

- 위치: 광산구 도산동 (송정서초 근처) 2층
- 면적: 50평(예배당, 목장실, 유아실, 주방, 식당)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50만원
※시설,비품 상당 후 결정

010-9212-1474/010-4102-3092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산청로(산청지구)
- 면적: 대지 67평 건물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 - 중 이층 유아실, 방습실
- 금액: 7억 5천만원(대출 2억5천5백만 포함)
※리모델링(친환경 황토 및 편백)

010-9661-9099

교회매매

- 위치: 북구 오치동 금호티문상가 2층
- 면적: 30평 (예배당 / 주방겸 카페)
- 금액: 1억 5백만원
※리모델링 됨 ※교회비품 모두 무료
※주차 편리

010-2606-6529/010-6811-0656